

-(으)ㄹ 법도 하다

~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

판단에 공감을 더하는 표현입니다. -(으)ㄹ 법하다는 어떤 일이 그럴 만하다는 뜻이고, 도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으니 탓할 수 없다는 뜻을 더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ㄹ 법도 하다	나다 → 날 법도 하다
받침 있음	-을 법도 하다	민다 → 민을 법도 하다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법도 하다
앞에 흔히 오는 것	이유	그런 일을 겪었으니 ...
도 없이	-(으)ㄹ 법하다	단순한 개연성
더 따뜻한 표현	-(으)ㄹ 만도 하다	화가 날 만도 해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짧은 형태를 쓰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: 만들다는 만들 법도 하다.가 됩니다. 법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도가 붙으면 단순한 개연성에서 공감 어린 이해: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화가 날 법도 하다고 의미가 바뀝니다 —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화가 날 만도 하다는 것입니다.

A 앞에는 보통 이유가 옵니다. 공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: 그런 일을 겪었으니, 오래 기다렸으니.

이 표현은 -(으)ㄹ 만도 하다고 매우 가깝습니다. 차이는 작습니다. 만도 하다는 더 따뜻하고 구어적이며, 법도 하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둔 느낌입니다.

■ 예문

- 1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화가 날 법도 하다.
- 2 오래 기다렸으니 포기할 법도 했습니다.
- 3 그 정도 설명이면 믿을 법도 하지요.
- 4 이쯤 되면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는 잠자코 있었다.
- 5 비용을 생각하면 직접 만들 법도 하다.
- 6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할 법도 합니다.

■ 비교

-(으)ㄹ 법하다

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그럴 만하다고 평가할 뿐입니다. 도가 공감을 더해 탓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.

그럴 법하다. (그럴 수도 있다) / 화가 날 법도 하다. (화가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)

-(으)ㄹ 만도 하다

거의 바뀌 쓸 수 있습니다. 만도 하다는 더 따뜻하고 말에서 쓰이며, 법도 하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글에서 더 많이 씁니다.

화가 날 만도 해요. (구어) / 화가 날 법도 하다. (문어)

-기 마련이다

마련이라는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뜻이고, 법도 하다는 특정한 반응이 이해할 만하다는 뜻입니다. 일반적인 법칙 대 개별적인 공감입니다.

실수하기 마련이다. (누구나 실수한다) / 화가 날 법도 하다. (그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)

■ 주의

✗ 비용을 생각하면 직접 만들을 법도 하다.

○ 비용을 생각하면 직접 만들 법도 하다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갖추고 있으므로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처럼 그대로 씁니다.

✗ 화가 날 법도 하니 사과하지 마세요.

○ 화가 날 법도 하니 먼저 사과하세요.

이 구문은 상대의 반응에 공감을 보내므로,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 주는 쪽으로 이어집니다.

✗ 비가 올 법도 하다. — “비가 올 것 같다”라는 의미로 쓴 경우

○ 비가 올 법하다.

날씨처럼 단순한 추측에는 도 없는 법하다가 맞습니다. 도는 공감을 더하는데, 날씨에는 공감이 필요 없습니다.